

RESEARCH ARTICLE

The Counselor's Attitude in Buddhist Counseling: Focusing on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Kim, Taeyeon(Do Saeng)

Professor, Bong Nyeong Sa,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불교상담자의 자세: 사홍서원을 중심으로

김태연(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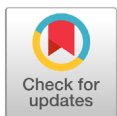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교수

*Corresponding Author: ashokka@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ttitude of counselors during Buddhist counseling, focusing on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eaning of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in Buddhist counseling? Second, what is the attitude of the Buddhist counselor based on the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in Buddhist couns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eaning of the first wish is that after liberation of all things, including humans, he himself will attain enlightenment. In counseling, it means that the counselor knows the client's inherent potential, so there is no wavering in leading the client on the right path. The meaning of the second wish is that we will return to our original pure mind, calm our defilements, reach a state where we are no longer shaken, and achieve final liberation. In counseling, it means that the counselor does not see the client as his own frame, that is, sees the client as they are. The third wish means to learn all the eighty-four thousand teachings. In counseling, it means that the counselor learns various counseling techniqu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ounsel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client. The meaning of the fourth wish is to achieve the highest Buddhahood. In counseling, it means that the counselor exerts the spirit of hope with an unstoppable mind to help the client achieve ultimate happiness, that is, enlightenment. Second, the attitude of the Buddhist counselor based on the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is as follows. First, it is an attitude of cultivating bodhisattvas through the salvation of sentient beings. At this time, the counselor should have the mindset that he has neither saved any sentient beings nor even thought that he has saved them, and should have the attitude to help each and every one of them achieve enlightenment. Second, it is an attitude that cuts off defilements and sees purity. In order to capture the feelings of the client when interacting with the client in the counseling field, the counselor must have an attitude that allows the counselor to cut off his distorted views and feelings and see the purity of the mind. Third, it is an attitude that models the Buddha. To this end, the counselor should have an attitude of helping the client to model the Buddha by experiencing various teachings on his own. Fourth, it is an attitude of radiating the Bodhisattva with an unstoppable heart. For this, the counselor must have the attitude of Buddha's great compassion.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attitudes of Buddhist counselors based on the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during Buddhist counseling.

Keywords: Buddhist counseling, Buddhist counselor,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Buddhist counselor's attitude



OPEN ACCESS

Citation : Kim, Taeyeon. The Counselor's Attitude in Buddhist Counseling: Focusing on Four Essential Vows for Buddhists.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20011>

Received: December 02, 2022

Revised: December 24, 2022

Accepted: December 28, 2022

Copyright: © 2022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담실을 찾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김동일, 이정인, 김기현, 유훈, 2021). 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한 위로와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김종득, 2022). 상담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할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을 말한다(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21). 반면에, 불교상담은 자신이 보살임을 자각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지혜를 모아 해탈과 열반을 도모하는 자리이다(방기연, 2000). 즉, 상담은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은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상담이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기술의 훈련을 거쳐야 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천성문 외, 2021). 특히, 상담자의 윤리는 상담자로서의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내담자에 대한 존중 및 상담관계와 비밀보장에 대해 상담자들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2).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상담에 대한 열의, 다양한 경험과 상담관 정립이 상담자의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하며, 상담자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담자들은 자신이 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상담자 수련을 통해 상담 이론을 학습하고 상담실습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상담 사례연구와 사례발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종합하면, 상담자는 상담시 내담자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가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방기연(2000)은 상담자의 자세로 첫째, 맑고 밝고 가벼운 심성, 둘째, 큰 서원과 정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이끄는 말법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의 큰 서원과 정진은 삼귀의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을 바탕으로, 지악수선과 이고득락 그리고 전미개오하는 수행생활을 통해 나를 다스려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탐욕과 욕망을 버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방안으로 서원을 제시한다. 서원은 원을 발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맹서하는 것¹⁾으로 사홍서원, 보현행원, 아미타불 48원 등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이 다 함께 일으키는 원이므로 총원(總願)이라고도 한다. 사찰에서 날마다 사시불공²⁾을 통해 독송하는 사홍서원은 모든 불교의례의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사홍서원은 불교의 핵심이며 발원의 총체이다. 사홍서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 나아가 지구촌과 전 우주의 평화를 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사홍서원을 수지독송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온 세상의 평화를 불러오는 일이며 독송하는 자 스스로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사홍서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홍서원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불교상담자의 자세로서의 사홍서원을 발하는 것이 불교상담자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상담에서 불교상담자의 사홍서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불교상담에서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불교상담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불교상담자가 사홍서원을 통하여 자리이타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안마련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김정배 (2001). 불교학대사전. 불서출판 흥법원. p.810

2) 사시(오전 9~11시)에 부처님께 마지(摩訶)를 올리는 공양의례. 사시에 마지를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구걸하고 원림으로 돌아와 공양을 시작하던 시간이 사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산대사람 12권, p.503

II. 이론적 배경

1. 사홍서원의 정의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이 인위에서 일으키는 네 가지 넓고 큰 서원을 가리키며, 사홍원(四弘願), 사홍행원(四弘行願), 사홍원행(四弘願行), 사홍서(四弘誓), 사홍(四弘), 총원(總願)⁴⁾이라고도 한다. 홍은 광홍(廣弘), 서는 서제(誓制)로 보살이 이 원으로 마음을 요제(要制)하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이며, 서원은 결정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말한다. 그런데 왜 사홍서원인가? 경전을 보면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다양한 서원을 발하는 장면을 무수히 볼 수 있다. 또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릴 때면 발원문을 적으라고 하는데, 개개인의 발원들과 보살의 서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전에 어른스님들께 여쭙보았을 때 이 것은 ‘사심(私心)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심이 들은 발원은 오욕락을 바탕으로 하기에 목표가 해탈에 있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으킨 마음은 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발원이라도 ‘나와 ‘나의’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일으킨 마음은 오욕락으로부터 자유롭다. 예를 들어 ‘좋은 상담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하는 것과 ‘좋은 상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하는 것은 비슷해보여도 전혀 다른 인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심을 배제하고 자타가 함께 행복한 발원을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바른 발원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없이는 세울 수 없다. 따라서 보살수행자로서의 바른 서원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을 따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사홍서원의 네 가지 서원은 다음과 같다.

1)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중생을 결정코 제도하겠다는 원으로 자장보살님의 서원이 떠오르는 구절이다. 보통 자장보살님을 칭할 때 ‘대원본존 자장보살’이라 표현한다. 그만큼 큰 원력을 지녔다는 의미인데, 욕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다 해탈시킨 후에야 자신도 성불을 이루겠다고 할 정도로 크다. 그래서 무량겁 동안 아직도 보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사홍서원에서의 ‘중생’은 사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해당된다. 『능엄경』⁵⁾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번뇌세계의 12류 중생도 본각이 묘하게 밝고 깨달음이 원만한 마음의 본체는 시방부처님과 둘이 없고 다르지도 않으나, 너희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진리를 미혹한 것이 허물이 되어, 어리석은 애욕이 발생하고 발생해서는 두루 미혹했기 때문에 허공의 성질이 있으며, 미혹이 쉬지 않고 변화하여 세계가 생겼느니라.⁶⁾

번뇌로 덮여 미혹한 12류 중생⁷⁾ 모두 마음의 본체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나 미혹에 빠져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상담자가 자신과 내담자에게 내재된 가능성을 알기에 바른 길로 이끌어 흔들림이 없듯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은 제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3) 因位 :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고 있는 과정·단계. 이에 반해, 수행으로 이룬 부처의 경지는 과위(果位)라고 함.

4) 제불·보살의 본원(本願)에 총원(總願), 별원(別願)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보살이 다 함께 일으키는 원이므로 총원·총서원이란 한다.

5) 『楞嚴經』. 10권. 본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당(唐)의 반자밀제(般刺蜜帝) 번역.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처님과 아난의 문답으로 시작하여 깨달음의 본성과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하고 여래장(如來藏)이 무엇인가를 밝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음신앙이라 하고 능엄다라니를 설한 다음 보살의 수행단계, 중생이 수행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에 대해 그 원인과 종류를 밝힘.

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9 : 「汝等當知, 有漏世界十二類生, 本覺妙明覺圓心體, 與十方佛無二無別; 由汝妄想, 迷理為咎癡愛發生, 生發遍迷故有空性, 化迷不息有世界生.」(CBETA 2022.Q3, T19, no. 945, p. 147b4-7)

7) 십이류생(十二類生) : 중생이 생을 받는 데의 12종.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유색(有色)·무색(無色)·유상(有想)·무상(無想)·비유색(非有色)·비무색(非無色)·비유상(非有想)·비무상(非無想) 등을 말함.

여래가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실로 어떤 중생도 여래가 제도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아, 만약 어떤 중생을 여래가 제도했다고 한다면, 곧 이것은 '나'라는 집착·중생이라는 집착·목숨이라는 집착·받는 자라는 집착인 것이다.⁸⁾

『금강반야바라밀경⁹⁾』에서는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중생은 중생이라 이름하였을 뿐, 실제로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한 일도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진정한 상담자의 마음자세이다.

2)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다함없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사찰에서 매일 읊는 저녁 종송의 첫 구절이 '문종성번뇌단(聞鐘聲煩惱斷) 지혜장보리생(智慧長菩提生)'이다. 곧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가 끊어져 지혜가 자라고 보리심이 생기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번뇌는 지혜와 보리심을 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보적경¹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큰 번뇌에 덮여 가려졌을진대 지혜가 없으므로 가령 누구나 환하게 알 수 있는 방편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능히 알지 못하게 든 하물며 비밀한 깊은 법문일까보냐?¹¹⁾

따라서 번뇌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이는 지혜 없는 중생이 깊은 법문을 바르게 보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번뇌는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것일까?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관¹²⁾수행을 들 수 있다. 그칠 지(止)자는 한문 그대로 번뇌를 멈춘다는 뜻이다. 사마타라고도 하는 이 수행법은 관(觀)하는 위빠사나 수행법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수행방법이다. 이와 같이 번뇌를 멈추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觀)하다보면 선정과 지혜가 생긴다. 『능엄경』에는 비유를 통해서 번뇌를 제하는 방법이 거론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혼탁한 물을 흔들리지 않는 그릇에 담아서 깨끗이 맑히는 것과 같다. 오래도록 가만히 두어 움직이지 않고 모래와 흙이 저절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뚜렷이 나타난 상태를 객진번뇌를 처음 누른 경계라고 하며, 탁한 찌꺼기마저 제거하여 순수하게 맑은 물만 남은 상태를 영원히 근본무명을 끊은 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맑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여, 일체의 변화가 나타나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다 열반의 청정한 묘한 덕과 계합하느니라.¹³⁾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려면 흙탕물을 가라앉히듯 번뇌를 가라앉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끊어내고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의 감정이 격해질 경우, 상담자는 개입을 통해 차분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차분해지면 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왜곡된 견해와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번뇌를 끊고 청정심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다. 이것이 내담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8) 『金剛般若波羅蜜經』: 「如來作是念: 我度眾生耶? 須菩提, 汝今不應作如是念. 何以故 實無眾生如來所度. 須菩提, 若有眾生如來所度, 即是我執、眾生執、壽者執、受者執.」(CBETA 2022.Q3, T08, no. 237, p. 765c21-25)

9) 『金剛般若波羅蜜經』. 관념에 집착없이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하는 지혜의 완성을 설한 경. 여섯 가지 번역이 있다. ①요진(遼鎭)의 구마라집(鳩摩羅什)역. ②북위(北魏)의 보리유지(菩提流支)역. ③진(陳)의 진제(眞諦)역. ④수(隋)의 급다(笈多)역, 『금강능단(能斷)반야바라밀경』 ⑤당(唐)의 현장(玄奘)역, 『대반야바라밀다경』 ⑥당(唐)의 의정(義淨) 역, 『능단(能斷)금강반야바라밀다경』

10) 『大寶積經』 120권. ⑤(Mahā)ratnakūṭa. K-22, T-310. 당(唐)의 보리유지(菩提流支 Bodhiruci)가 번역 편집. 대승의 경들을 한 데 모은 경으로, 총 49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회마다 별도의 경이어서 정토(淨土)·반야(般若)·밀교(密敎) 등 내용이 다양함. 27회는 부리유지의 번역이고, 나머지는 축법호(竺法護)·현장(玄奘)·의정(義淨)·구마라집(鳩摩羅什) 등의 번역임.

11) 『大寶積經』卷5: 「為大煩惱之所覆蔽無智慧故, 假使少有明了順說尚不能解, 何況秘密非隨順說」(CBETA 2022.Q3, T11, no. 310, p. 29b21-23)

12) 止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산란을 멈추고 평온하게 된 상태(止, ⑤śamatha)에서 바른 지혜를 일으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주시함(觀, ⑤vipaśyanā).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로써 모든 현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수행. 지는 정(定), 관은 혜(慧)에 해당함.

1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4: 「如澄濁水貯於[7]淨器, 靜深不動, 沙土自沈清水現前, 名為初伏客塵煩惱; 去泥純水, 名為永斷根本無明. 明相精純, 一切變現不為煩惱, 皆合涅槃清淨妙德」(CBETA 2022.Q3, T19, no. 945, p. 122b28-c2)

3)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법문을 설하여 그 수가 팔만사천¹⁴⁾이라 이른다. 법문무량서원학은 보이는 대로 팔만사천법문을 두루 배우겠다는 의미와 팔만사천법문의 도리를 알도록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배움의 목적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법문을 배운 사람 스스로의 지혜를 증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문을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각 근기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법문을 공부하다보면 스스로의 입지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고, 경전을 기반으로 한 수행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담에서도 모델링은 좋은 길을 안내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인데, 부처님을 모델링하려면 다양한 법문을 접하고 해석해봐야 한다. 법문을 두루 읽고 도반과 함께 토론하며 부처님을 모델링하여 수행하다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상담자가 다양한 상담기법들을 배우고 이 틀들을 내재화하여 내담자에게 맞는 상담을 해준다면 상담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내담자에게 모델링으로 좋은 틀을 마련해주어 내담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처님은 『불설대방광선교방편경¹⁵⁾』에서 스스로를 명의인 대의왕¹⁶⁾에 비유하여 각기 중생의 근기에 알맞은 약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여래대사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갖가지 선교방편을 구족하여 대의왕이 되어 모든 병을 잘 치료하되, 중생에게 무슨 병이 있는가 관찰하여 그에게 적응하도록 선교방편으로 구원하고 치료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¹⁷⁾

옛날 스님들께서 교학으로 자신의 기틀을 다진 뒤 사교입선¹⁸⁾하여 그것을 실증(實證)하다보면 팔만대장경의 내용이 다 알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지혜가 증장하면 사건과 정견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번뇌를 끊어 정혜가 드러나면 모든 경전의 이치를 알 수 있으므로 법문무량서원학의 서원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번뇌무진서원단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했을 때 모든 법문을 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스로의 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지혜가 줄지 않으며, 남에게 갖가지 법문을 들으면 모두 평등한 법성으로 회통해 들어가고, 부처의 종자인 일체지의 지혜를 이어받아 항상 번성하여 끊임이 없게 하며, 모든 불법에서 이미 광명을 얻었고, 이미 일체지의 지혜로 가까워졌다¹⁹⁾

법문무량서원학의 서원을 스스로 깨달아 증득한 무량한 법문을 다른 이에게도 설법하여 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였을 때, 앞의 번뇌무진서원단, 중생무변서원도 그리고 불도무상서원성의 내용과도 두루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법문을 배우고 실천하여 위없는 불도를 이루는 서원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고, 법문을 배움으로서 번뇌를 끊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중생이 부처와 같이 아님을 알기에 원만히 제도하여 함께 불도무상서원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배우는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들이 스스로의 자기성찰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내담자와의 눈높이 상담에도 도움이 되듯, 무량한 법문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성취와 동시에 중생의 근기에 맞는 설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14) 팔만사천(八萬四千) : 많은 수의 모두를 나타내는 말. 8만이라고도 한다.

15) 『佛說大方廣善巧方便經』 4권. ⑤(Upāyakauśalya)jñānotttarabodhisattvapariṣcchā(sūtra). K-1424, T-346. 『선교방편경(善巧方便經)』이라고도 함. 북송(北宋)시대에 시호(施護 Dānapāla)가 1005년에 번역.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머무실 때, 지상보살의 질문을 받으시고 보살이 선교방편을 갖추어 중생을 수제하는 것에 대해 설한 경전. 이역본으로 『대보적경』의 제38『대승방편회』, 『해상보살문대선권경』이 있다.

16) 大醫王 : ⑤vaidya-rāja. 대의라고도 함. 가장 위대한 최고의 의사를 말한다. 부처님과 보살 등에 비유한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잘 치료해주고 그 병에 따라 적저란 약을 주는 식의 방편설에 능하므로 의사에 비유하여 이렇게 비유한다.

17) 『佛說大方廣善巧方便經』卷3 : 「如來大師亦復如是, 具足種種善巧方便, 為大醫王善療眾病, 隨觀眾生有何等病, 如其所應, 以善巧方便而為救療, 皆令解脫.」(CBETA 2022.Q3, T12, no. 346, p. 175b18-21)

18) 捨教入禪 : 교리를 연구하다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교리에만 깊이 천착하지 않고, 방법과 의론인교를 떠나 실천수행을 하기 위해 선리(禪理)참구의 길로 들어간다는 말.

19) 『大般若波羅蜜多經(第401卷-第600卷)』卷599 : 「自心無退, 智慧無減; 從他聽受種種法門, 皆能會入平等法性; 紹隆佛種一切智智, 令常興盛無有斷絕; 於諸佛法已得光明, 已得隣近一切智智.」(CBETA 2022.Q3, T07, no. 220, p. 1101c5-8)

4)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경전의 시작에 독송하는 개경계(開經偈)²⁰⁾에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²¹⁾’라는 구절이 있다. 위없는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보고 들었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알아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법은 무상(無上), ‘위없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부처가 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없고, 이 법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기에 최상승(最上乘)이라고도 부른다. 『금강반야바라밀경론²²⁾』에서는 무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계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에 무상(無上)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무상상(無上上)이기 때문에 경에 ‘또 수보리아,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또 모든 불·여래의 청정한 법신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그곳엔 더 뛰어난 것도 없다. 그런 까닭에 위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²³⁾

불법의 가장 핵심은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라는 진리이다. 따라서 높고 낮음도 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잘나고 못나도 없기에 모두가 평등하다. 누구나 여래·응공·정변지·명행족·선사·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²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명에 가리워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할 뿐이니, 보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알려주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전에 ‘오래 살아 눈 먼 거북이가 바다 속에서 백 년 만에 숨을 쉬러 수면으로 올라와 우연히 구멍 난 나무판자를 만나 그 구멍에 목을 기대어 쉬기 어려운 것’²⁵⁾만큼 사람 몸 받기 어렵다 하였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지금 우리는 무상법을 만났으니 어찌 그 끝을 보지 않을 것인가! 마땅히 우리는 사홍서원을 통해 무상법에 대한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에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수보리아, 보살마하살은 모든 생각을 떠나고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땅히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아야 하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아야 하며,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법 아닌 것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아야 하니, 어떤 곳에도 머무른 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머무름이 있는 마음이라고 해도 머무름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²⁶⁾

이와 같이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불도무상서원성이다. 그렇다면 보리심을 내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보리, 즉 깨달음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걸까?

나는 이미 인간과 천상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너희들도 인간과 천상의 속박을 벗어났으니, 너희들은 인간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제도하고 많은 이익을 주어 인간과 하늘을 안락하게 하되, 짝지어 다니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다니도록 하라.²⁷⁾

20) 경을 독송하기 전에 먼저 외우는 계송.

21)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我今見聞得受持 願解如來真實義

22) 『金剛般若波羅蜜經論』 ⑤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āsāsūtra. 3권. K-558, T-1511. 원위(元魏)시대에 보리유지(菩提流支)가 509년에 호상국(胡相國)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금강반야경론』, 『금강반야론』이라고도 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주석으로 경문을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이역본으로는 『능단금강반야밀다경론석』이 있다.

23) 『金剛般若波羅蜜經論』卷3: 「不增減者, 是法平等, 是故名無上, 以更無上上故. 如經「復次須菩提! 是法平等, 無有高下, 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又諸佛如來清淨法身平等無差別, 於彼處無有勝者, 是故說無上」(CBETA 2022.Q3, T25, no. 1511, p. 793c19-23)

24) 십호(十號): 부처님의 열가지 호칭. ①여래(如來). 진리에서 온 자. 진리에 이른 자. 진리에 머무는 자. ②응공(應供). 마땅히 공양 받아야 할 자. ③정변지(正遍知).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는 뜻. ④명행족(明行足). 지혜와 수행을 완성하였다는 뜻. ⑤선사(善逝). 깨달음에 잘 이르렀다는 뜻. ⑥세간해(世間解). 세간을 모두 잘 안다는 뜻. ⑦무상사(無上士). 그 위에 더 없는, 최상의 사람. ⑧천인사(天人師). 하늘(신)과 인간의 스승. ⑨불(佛). 깨달은 사람. ⑩세존(世尊).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 세간에서 가장 존귀한 자.

25) 맹귀우목(盲龜遇木) 『열반경(涅槃經)』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의 몸을 받아 세상에 나가거나, 불법을 만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말.

26) 『金剛般若波羅蜜經』: 「菩薩摩訶薩捨離一切想, 於無上菩提應發起心, 不應生住色心, 不應生住聲、香、味、觸心, 不應生住法心, 不應生住非法心, 不應生有所住心. 何以故? 若心有住, 則為非住.」(CBETA 2022.Q3, T08, no. 237, p. 764a13-16)

27) 『雜阿含經』卷39: 「我已解脫人天繩索, 汝等亦復解脫人天繩索. 汝等當行人間, 多所過度, 多所饒益, 安樂人天, 不須伴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승가에게 전법을 떠나라고 하셨다. 만일 깨달음이 자신만을 위한 행복이라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설법하지 않고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리셨을 것이다. 또 제자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아라한과를 얻었을 때 전법하러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둘도 셋도 아니라 혼자서 인천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가라고 하신 가르침과 공양을 받으면 늘 설법하라고 하신 점들을 미루어 보면, 당연히 나와 남을 위한 행복일 것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어지게 만들어 지혜로서 무량한 법문을 알고 깨달음에 이르는 사홍서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발생 가능하다. 깨달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문을 통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번뇌가 끊어진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즉, 사홍서원은 나와 남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며,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사홍서원을 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 사홍서원의 이해

사홍서원은 불교의 기본 교의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²⁸⁾의 내용과도 상통한다. 천태지의²⁹⁾선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네 가지를 모두 흥서원이라 함은 광대하고 넓은 연(緣)을 일러 흥이라 하고,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서라 이르고, 뜻이 만족되기를 구하므로 원이라 한 것이며 보살마하살은 자비로서 사진제와 인연한다³⁰⁾’고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연³¹⁾스님의 『지관대의³²⁾』에서도 다루고 있다.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중생무번서원도는 중생계가 그대로 고(苦)이므로 고성제, 다함없는 번뇌를 끊으리라는 번뇌무진서원단은 번뇌가 고의 원인이므로 집성제,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리라는 법문무진서원단은 열반을 향해가는 방법인 도성제,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라는 불도무상서원성은 멸성제³³⁾로 배대하고 있으며, 이는 사성제의 실천적인 측면을 토대로 한다. 『잡아함경³⁴⁾』에서는 ‘대의왕’의 비유를 통해 사성제를 드러내고 있다.

行，一一而去。」(CBETA 2022.Q4, T02, no. 99, p. 288b1-5)。

28) 인식과 수행과 깨달음 등의 인과를 나타내는 고·집·멸·도(苦集滅道) 등 네가지 근본적인 진리. ‘성’이란 오로지 성인의 경지에서 본 진리로서 범부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란 뜻이고, ‘제’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사제(四諦)·사진제(四眞諦)라고도 한다. 이 사성제는 부처님 최초의 설법으로서 원시불교 교의의 근본이며 모든 지혜가 파생하는 원천이다.

29)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 중국 수나라 때 스님으로 천태종의 개조(開祖). 호는 지자(智者). 자는 덕안(德安). 속성은 진(陳). 현주 화용현 사람. 18세에 상주 과원사에서 법서(法緒)에게 출가. 38세에 천태사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 법화경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일하여 천태종을 완성함. 시호(諡號)는 법공보각영혜존자(法空寶覺靈慧尊者). 저서에 『법화현의(法華玄義)』, 『법화문구(法華文句)』, 『마하지관(摩訶止觀)』, 『관음현의(觀音玄義)』, 『관음의소(觀音義疏)』, 『금광명현의(金光明玄義)』, 『관무량수경소(觀無量壽經疏)』 등 30여부가 있음.

30) 『法界次第初門』卷3:「此四通言弘誓願者。廣普之緣。謂之為弘。自製其心名之曰誓。志求滿足。故云願也。菩薩摩訶薩。以慈悲緣四眞諦。」(CBETA 2022.Q3, T46, no. 1925, p. 685b24-27)

31) 담연(湛然, 711-782) 중국 당나라 스님. 중국 천태종 중흥조로 지의(智顗)를 초조로 할 때 제6조가 된다. 속성은 적씨로서 형계존자(荊溪尊者)·묘락대사(妙樂大師)·기주법사(記主法師)라고도 한다. 상주 진릉현 형계(荊溪)사람으로 20세에 좌계(左溪) 현량(玄朗)의 문하에 들어가 천태종의 교의를 익히고 율·선·화엄·유식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천태대사 저술의 연구와 교화에 힘썼고 만년에는 천태산 국청사에서 보냈다. 주요 저작에는 『법화현의석첩(法華玄義釋籤)』 10권,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 10권,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 10권, 『지관수요기(止觀搜要記)』 10권, 『지관대의(止觀大意)』 1권, 『금강비론(金剛錍論)』 1권, 『법화삼매보조의(法華三昧補助儀)』 1권, 『시종심요(始終心要)』 1권 등이 있고 지금도 모두 유통되고 있다.

32) 『止觀大意』 1권. 당나라의 담연이 저술함. 여러 경전의 십의(十義) 및 오방편(五方便)과 십승관(十乘觀)의 요한 뜻을 해석한 책.

33) 『止觀大意』:「四弘是能發之誓。四諦是所依之境。六即是所歷之位。誓若無境名為狂願。境不辨位凡聖不分。言依境發誓者。謂眾生無邊誓願度。依苦諦境。煩惱無數誓願斷。依集諦境。法門無盡誓願知。依道諦境。佛道無上誓願成依滅諦境。涅槃經中四諦開為四重。故使弘誓亦有四番」(CBETA 2022.Q3, T46, no. 1914, p. 459b21-27)

34) 『雜阿含經』 ⑤Samyuktāgamasūta. 50권. K-650, T-99.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Guṇabhadra)가 435~443년 사이에 양도(楊都)의 와관사(瓦官寺)에서 번역. 4아함, 혹은 5아함의 하나. 이에 상당하는 팔리어 경전에는 총 7,762개의 경이 들어있다. 4아함 중 짧은 경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경전으로, 이러한 점은 『잡아함경』이 다른 아함경에 비해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경전이라고 추정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네 가지 법을 성취하였으므로 대의왕이라 한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도구와 왕의 자격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어떤 병인지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고, 셋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며, 넷째 병을 잘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³⁵⁾

어떤 병인지 잘 아는 것은 중생에 대해 잘 알고 다함이 없더라도 서원하리라는 중생무변서원도,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은 고통의 원인인 번뇌에 대해 잘 알게 되어 기필코 끊으리라는 서원을 세우는 번뇌무진서원단, 치료방법을 잘 아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 다양한 방편과 근기를 꿰뚫는 법문무량서원학, 다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없는 불도를 이루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불도무상서원성의 서원에 배대하여 볼 수 있다. ‘대의왕이 네가지 법을 성취하여 도구와 자격에 상응한다’는 것은 사홍서원을 이미 성취하여 다양한 방편도 갖추었고 방편을 잘 쓰는 사람으로도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까지도 하는 의사이다. 훌륭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 호소문제에 공감해주고 원인을 통찰하여 끊게끔 도와줄 뿐 아니라 부정응적인 사고와 그 패턴에서 벗어나 같은 괴로움에 다시 빠지지 않게끔 도와야 한다.

『보살영락본업경³⁶⁾』에서도 사홍서원을 사성제로서 말하고 있다.

십관심(十觀心)에서 관(觀)해야 할 법이란, 첫째는 두텁게 일체 선근을 모으는 것이니, 이른바 사홍서원이니라. 아직 고제(苦諦)를 건너지 못한 자는 고제를 건너게 하고, 아직 집제(集諦)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집제를 이해하게 하고, 아직 도제(道諦)를 안심하지 못한 자에게는 도제에 편안케 하고,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³⁷⁾

중생무변서원도는 이타행(利他行), 나머지 세 구절은 자리행(自利行)으로 보살의 수행덕목인 자리이타³⁸⁾로 해석하여, 흔히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 하여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입장과 다름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자리와 이타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홍서원은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또 혜능³⁹⁾스님은 『법보단경⁴⁰⁾』을 통해서 네 가지 서원의 대상을 자성(自性)으로 돌려, 참된 건짐은 마음속의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는 마음, 망령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마음 속 중생을 각각 자성으로 스스로 건지는 것이라 하였다. 마음 속 중생인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을 바른 견해로 건지고, 바른 견해의 반야지혜로써 삿된 것은 바른 것으로, 미혹함은 깨달음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악은 선으로, 망령된 중생을 처부수어 스스로 건지라는 것이다. 번뇌무진서원단은 자성의 반야지혜로 허망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고, 법문무량서원학의 참된 배움은 스스로 견성하여 참법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불도무상서원성은 항상 겸손하게 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고, 미혹과 깨달음 양면에서 벗어나 항상 반야를 내고, 참도 없고 거짓도 없는 불성자리를 보아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도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자성을 향한 사홍서원의 의미도 또한 자리와 이타의 측면에서 본문의 내용과 상통한다.

3. 사홍서원의 공덕과 실천

35) 『雜阿含經』卷15 : 「有四法成就, 名曰大醫王者, 所應王之具、王之分。何等為四? 一者善知病, 二者善知病源, 三者善知病對治, 四者善知治病已, 當來更不動發。」(CBETA 2022.Q4, T02, no. 99, p. 105a25-29)

36) 『菩薩瓔珞本業經』 2권. 요진(姚秦)의 축불념(竺佛念) 번역.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십지(十地)·무구지(無垢地)·묘각지(妙覺地)의 42현성(賢聖), 삼취정계(三聚淨戒), 수계(受戒)의 공덕, 참회 등을 설한 경.

37) 『菩薩瓔珞本業經』卷1<3 賢聖學觀品> : 「所謂四弘誓, 未度苦諦令度苦諦、未解集諦令解集諦、未安道諦令安道諦、未得涅槃令得涅槃。」(CBETA 2022.Q3, T24, no. 1485, p. 1013a20-22)

38) 自利利他 :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수양을 주도하는 것은 자리(自利)이고, 다른 이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타(利他)이다. 대승보살이 닦는 행과(行果). 다만 자리만을 행하는 소승인 성문·연각의 행이 다름을 구별한 것. 이 자리이타를 완전하고 원만하게 수행한 사람을 부처라 한다. 자익익타(自益益他)·자리이인(自利利人)·자행화타(自行化他)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인다.

39) 혜능(慧能, 638-713). 선종(禪宗) 제6조. 당(唐)의 승려. 남해(南海) 신흥(新興)사람. 육조대사(六曹大師) 혹은 조계대사(曹溪大師)라 함.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땔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어느날 장터에서 『금강경』 읽는 것을 듣고 출가할 발심을 하다.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담 함형 때(670-674) 소양(韶陽)으로 갔다가 무진장비구니가 『열반경』 독송함을 듣고 그 뜻을 요해하였으며, 뒤에 제5조 홍인(弘忍)에게 찾아가서 선의 깊은 뜻을 전해 받다. 676년 남방으로 가서 교화를 퍼다가 조계산에 들어가 대법을 선양하다.

40) 『法寶壇經』·『육조단경(六祖壇經)』·『단경(壇經)』이라고도 함. 1권. 당(唐)의 법해(法海)스님이 광동성(廣東省) 소주(韶州) 대법사(大梵寺)에서 혜능스님이 설법한 것을 엮음.

자리아타의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사홍서원은 원바라밀⁴¹⁾에 함의되기도 한다. 계빈국 삼장 반야⁴²⁾스님의 『대승본생심지관경⁴³⁾』에서 원바라밀을 ‘네 가지 큰 서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출가한 보살은 산 숲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항상 원(願)바라밀을 닦아 익힐 수 있으므로, 마음이 항상 모든 법의 진실된 성품은 있음도 아니고 텅빈도 아닌 중도(中道)라는 미묘한 이치를 관찰하여 세속의 일을 모두 분별할 수 있어서 유정을 교화하기 위하여 항상 자비를 닦으니, 이런 인연으로 곧 원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며, 네 가지 큰 서원으로 중생을 거두며 또한 몸을 던져서라도 자비의 서원(悲願)을 무너뜨리지 않음으로 곧 친근바라밀이라고 이르는 것이며, 미묘한 법을 설함에 말씀씨가 막힘이 없어서 만일 누구라도 듣는다면 끝내 물러나지 않으니 곧 진실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선남자여, 이것을 출가한 보살이 원바라밀다를 성취하였다고 하는 것이다.⁴⁴⁾

위 내용을 미루어 살펴보면 사홍서원은 중도의 이치를 깨닫는 기틀이 될 수 있으며 자비를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는 친근바라밀과 진실바라밀까지 증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홍서원은 승나승열⁴⁵⁾이라는 말로 경전의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갑주를 입었다는 표현에서 사홍서원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촉불국경⁴⁶⁾』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아촉불⁴⁷⁾이 비구였을 시절 스스로를 위하여 큰 승나승열을 입었다⁴⁸⁾며 사홍서원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살이 처음 뜻(사홍서원)을 일으키면 곧 일체의 인민 및 기어 다니고 날아다니고 꿈틀대는 벌레의 무리에 대하여 뜻으로 화내고 분노하지 않으며, 또한 분노나 원한에 빠지지 않는다.⁴⁹⁾ …(중략)… 어떤 비구 또는 보살마하살이 그 몸을 승나로 무장하고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추구한다면 모두 마땅히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에 입각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⁵⁰⁾

라고 하였다. 이는 사홍서원으로 무장하는 것이 정각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홍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비심으로 일체를 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지대하여 화나 분노 원한에 빠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홍서원의 마음으로 수행하

- 41) 願波羅蜜 : ③prañidhāna-pāramitā. 원의 완성. 십바라밀중 제8. 깨달음을 얻고자 원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원하는 것.
- 42) 반야(般若) 생물론 미상. 복인도 계빈국 출신 승려. 7세에 출가 23세에 나란타사에서 유식학과 밀교를 배우고, 남인도에 가서 달마야사에게 밀교를 배움. 781년 공동성 광주에 도착하고 이듬해 장안에 와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40권 화엄경(華嚴經)』 등을 번역하고 낙양에서 입적함.
- 43) 『大乘本生心地觀經』 8권. 당나라 때 반야 한역. 대장장3, pp.291a2~331c11, No.159에 수록. 『본생심지관경』, 『심지관경』 등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석가모니불께서 기사굴산에서 문수사리·미륵 등의 대보살을 위해 출가하여 아란야(阿蘭若)에 머물며 수행하는 자가 어떻게 심지(心地)를 관찰하고 망상(妄想)을 여의어 불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밝혔다.
- 44) 『大乘本生心地觀經』卷7(8 波羅蜜多品) : 「出家菩薩入於山林, 為諸眾生常能修習願波羅蜜, 心恒觀察諸法真性, 非有非空中道妙理, 於世俗事悉能辨了, 為化有情恒修慈悲, 以是因緣, 即得名為願波羅蜜。以四弘願攝受眾生, 乃至捨身不壞悲願, 即得名為親近波羅蜜。說微妙法辯才無礙, 若有聽聞畢竟不退, 即得名為真實波羅蜜。善男子! 是名出家菩薩成就願波羅蜜多」(CBETA 2022.Q3, T03, no. 159, p. 323b11-19)
- 45) 僧那僧涅 : ③saṃnāha의 음사어. 승나는 홍서(弘誓)·대서(大誓)라 한역. 자서(自誓)라 한역하는 승열(③saṃnaddha)과 붙여쓰는데, 두가지 모두 보살의 4홍서원(弘誓願)을 말함. 또한 구역 승나는 개(鎧), 승열은 착(著) 또는 장엄(莊嚴)이니, 갑옷을 입음이라 하여 착개(著鎧)·피갑(被甲), 큰 갑옷을 입었다고 대서장엄(大誓莊嚴)이라고도 한다. 4홍서원을 갑주에 비유한 말.
- 46) 『阿閼佛國經』 2권 5품으로 구성되었다. 후한의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 『보적경(寶積經)』의 부동여래회(不動如來會)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번역본. 줄여서 『아촉불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아촉불찰보살학성경(阿閼佛刹菩薩學成經)』, 『아촉불찰제보살학성경(阿閼佛刹諸菩薩學成經)』이라고도 한다.
- 47) 阿閼佛 : ③Akṣobhya. 밀교 금강계 오불(五佛) 중 한 분. 동방(東方) 아비라제(③Abhirati : 妙喜)세계의 주존(主尊). 아미타불과 함께 현재불에 속한다. 아촉바·아촉비불·아촉비환희광불·아주비야 등으로 음사하고, 부동(不動)·무동(無動)·무노(無怒)·무진에(無瞋恚) 등으로 한역한다.
- 48) 『阿閼佛國經』卷1(1 發意受慧品) : 「其比丘如是為, 以被是大僧那僧涅」(CBETA 2022.Q3, T11, no. 313, p. 752a29-b1)
- 49) 『阿閼佛國經』卷1(1 發意受慧品) : 「菩薩摩訶薩初發是意, 乃於一切人民、蜎飛、蠕動之類意無瞋怒、亦無恚恨也。」(CBETA 2022.Q3, T11, no. 313, p. 752b1-2)
- 50) 『阿閼佛國經』卷1(1 發意受慧品) : 「若復有比丘菩薩摩訶薩以是色像僧那求無上正真道者, 皆當成無上正真道最正覺也」(CBETA 2022.Q3, T11, no. 313, p. 752c22-24)

면 정각을 이룰 수 있다. 또 『방광반야경⁵¹⁾』에서는 분별없이 중생을 위해서 사홍서원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다.

보살은 승나승열을 이루어서 중생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또한 ‘나는 마땅히 약간의 사람만을 제한적으로 제도하고 나머지 사람은 제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나는 약간의 사람만 가르쳐 도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나는 나머지 사람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므로 큰 서원을 일으켜 ‘나는 스스로 육바라밀을 구족해서 마땅히 타인을 가르쳐 육바라밀을 구족하게 하겠다’고 말한다.⁵²⁾

위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사홍서원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대반야경(大般若經)』에선 보살이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공덕의 갑옷을 입고 대서원으로 장엄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리자야, 이 보살마하살은 유정들의 뒤바뀐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공덕의 갑옷을 입고, 큰 서원을 장엄하며, 용맹하고 바르고 부지런히 힘써 돌아보되 아낌이 없으며,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항상 깨달음에 대하여 내가 증득할까 못할까 망설임이 없으며 항상 나는 반드시 구하고자 하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증득하여 유정들의 진실한 이익이 되리니, 이른바 미혹한 뒤바뀐 모든 취에 오가면서 받는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하고 생각하느니라.⁵³⁾

『마하반야초경⁵⁴⁾』에서는 어떤 것이 보살의 좋은 스승이냐는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위대한 반야바라밀을 존중하며 조금씩 사람들을 가르쳐 그것을 배워서 가르침을 이루게 하고, 마(魔)의 일을 말해주어 마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멀리 모든 마를 멀리 여의게 한다. 이런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마하승나승열과 마하연과 삼발제에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보살의 좋은 스승이라 하느니라.⁵⁵⁾

곧 마하승나승열과 마하연과 삼발제를 바탕으로 보살의 좋은 스승이 되는데, 이는 반야바라밀의 실천과 마(魔)에 대한 바른 통찰이 필수조건이다. 마하승나승열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마(魔)인지 구분하여 멀리 여윌 수 있다. 또한 『대보적경』에서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네 가지 법으로서 사홍서원을 말하고 있다.

51) 『放光般若經』 20권. 291년 서진(西晉)의 무라차·축숙란 함께 번역. 『대반야경』의 제 5분, 곧 『대반야경』의 다른 번역으로 「방고아품」·「무견품」·「가호품」으로부터 「살타파륜품」·「법상품」·「촉루품」에 이르기까지 97품으로 이뤄짐. 서진의 축법호가 번역한 『광찬반야경』은 뒷부분이 없는 이 경의 앞 30품에 해당함.

52) 『放光般若經』卷3〈16 問僧那品〉: 「菩薩成僧那僧涅槃不限眾生, 亦不言: 『我當限度若干人, 不能度餘人。』亦不言: 『我當教若干人至道。』亦不言: 『我不能教餘人。』菩薩為眾生故, 起大誓願言: 『我自當具足六波羅蜜, 亦當教他人使具足六波羅蜜。』菩薩行檀波羅蜜所布施應薩云若, 意願言: 『持是功德, 與一切眾生俱, 共得阿耨多羅三耶三菩。』」(CBETA 2022.Q4, T08, no. 221, p. 20a24-b1)

53) 『大般若波羅蜜多經(第201卷-第400卷)』卷392: 「舍利子, 是菩薩摩訶薩為脫有情顛倒執著, 撥功德鎧大誓莊嚴, 勇猛正勤無所顧惱, 不退無上正等菩提, 常於菩提不起猶豫, 謂我當證、不當證耶 恒作是思 我必當證所求無上正等菩提, 作諸有情真實饒益, 謂令解脫迷謬顛倒諸趣往來受生死苦。」(CBETA 2022.Q3, T06, no. 220, p. 1027b13-18)

54) 『摩訶般若鈔經』 5권. ⑤Aṣṭ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sūtra. K-5,T-226. 전진(前秦)의 담마비(曇摩婢, Dharmapriya)와 축불념(竺佛念)이 382년에 장안(長安)에서 번역. 줄여서 『마하반야경』·『초경(鈔經)』이라고 함. 이역으로는 『도행반야경』·『마하반야바라밀경』·『불설불모보덕장반야바라밀경』·『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소품반야경』 등이 있다.

55) 『摩訶般若鈔經』卷1〈1 道行品〉: 「其人尊重摩訶般若波羅蜜, 稍稍教人令學成, 教語魔事, 令覺魔、令遠離諸魔。是故菩薩摩訶薩, 摩訶僧那僧涅槃, 摩訶衍三拔致諦。是為菩薩摩訶薩善師。」(CBETA 2022.Q4, T08, no. 226, p. 510a29-b3).

다시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항상 한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여래의 모든 공덕을 칭찬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받은 바 율의가 두루 청정하기 때문이며, 넷째는 수승한 의요⁵⁶⁾로서 큰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니라.⁵⁷⁾

‘승나승열’이라는 갑주로서의 사홍서원의 표현은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마구니가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흔들림없는 마음의 위신력으로 꽃비로 변하였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불본행집경⁵⁸⁾』에서 마왕 파순은 무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게 하였으나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가 아이의 장난을 보듯 놀라거나 움직이지 않았고, 공격하려고 풀어놓은 뱀은 움직이지 못했으며, 벼락과 우박과 돌을 비처럼 쏟아지게 했으나 부처님의 앞에서 꽃비로 변하였다. 부처님을 향해 쏜 화살과 칼은 도로 손에 붙어 쏘아지지 않았고, 태우려고 하였으나 보이지 않았으며 공격하려고 달려갔으나 부처님 곁에 이르지 못하였다. 계승에선 이 것이 서원과 지혜의 힘이라고 명료하게 밝혔다.

마군들은 몸과 뜻이 미혹하여서
갓가지 방편으로 해치려 했으나
그가 앉은 자리를 움직이지도 못했으니
서원과 지혜의 힘이 굳센 까닭이라.⁵⁹⁾

지금까지 경전을 통해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사홍서원을 일으키면 중도의 오묘한 도리를 깨우칠 수 있으며, 친근바라밀과 진실바라밀을 이루게 되고,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에 대해 화·분노를 일으키거나 원한에 빠지지 않는다. 사홍서원을 발하는 것만으로도 두호의 기능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여 망설이거나 물러남이 없고, 평등한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익한 일이 된다. 사홍서원을 발하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魔)를 분별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알려 멀리 여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홍서원을 발하는 마음은 수행에 온갖 장애를 제어하는 보호막이며,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고, 지혜와 자비가 증장하는 것이며, 또한 바라밀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의스님은 『법계차제초문⁶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이 만일 제법실상의 지혜를 쓰려한다면 이 사홍서원을 발하라. 사홍서원이 곧 발보리심이고 보살만행의 근본이며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근원이니라.⁶¹⁾

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홍서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불교상담자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사홍서원의 의미는 첫째,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해탈시킨 후 자신도 성불을 이루겠다, 둘째,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가 번뇌를 가라앉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해탈을 얻겠다, 셋째, 팔만사천법문을 모두 배우겠다, 넷째,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에서 내담자를 흔들림 없이 제도하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며, 다양한 상담기법을 배워 상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깨달음의 증득을 돕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상담자의 자세는 중생제도를 통해 보살행을 닦는 것, 번뇌를 끊고 청정심을 볼 것, 부처님을 모델링

56) 意樂 : ㉠aseya. 아세야(阿世耶)의 번역. 의념요욕(意念樂欲)하는 뜻.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취지.

57) 『大寶積經』卷85 : 「復有四法得值諸佛。云何為四? 一者恒以一心專念佛故, 二者稱讚如來諸功德故, 三者所受律儀遍清淨故, 四者以勝意樂發弘願故。」(CBETA 2022.Q4, T11, no. 310, p. 490b16-19)

58) 『佛本行集經』. 60권. ㉠Abhinishkramāṇasūtra. K-802, T-190. 수(隋)의 사나굴다(闍那崛多 Jñānagupta)가 587~595년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번역. 줄여서 『본행집경』이라 한다. 부처님의 전생·계보·전기 그리고 제자들의 열전(列傳)을 집대성한 경.

59) 『佛本行集經』卷29 : 「魔軍身意悉亂迷, 種種方便欲害聖, 不能驚動彼坐處, 以有誓願智力強。」(CBETA 2022.Q4, T03, no. 190, p. 788a24-25)

60) 『法界次第初門』3권. 수(隋)의 지의(智顗) 지음. 법수(法數) 60항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저술.

61) 『法界次第初門』卷3 : 「菩薩若以諸法實相之慧。發此四願。即是發菩提心。萬行之本。靈覺之源」(CBETA 2022.Q3, T46, no. 1925, p. 685b29-c1)

할 것,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홍서원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 스스로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사홍서원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이 동반되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끔 할 때 발휘되는 것이다. 궁극적 이상으로서의 원은 시공간을 관통하는 절대적 명제이다. 그러나 현실의 모든 존재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존재들이다. 정해진 조건 속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해도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구제할 수 없듯이,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잘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홍서원의 의미를 알아볼수록 그 뜻이 깊고 광대하여 거룩함에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지만 현실에서의 실천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아득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은 실천가능성에 대해 네 가지로 보리심을 알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부처님과 보살의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을 보고 듣고서 나도 또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것. 둘째, 부처님과 보살의 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으로써 뒤에 바로 믿고 공경심을 내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와 마하반야를 닦는 것. 셋째, 부처님과 보살의 일을 보고 듣지는 못했으나 법이 없어지는 때를 보고서 나의 몸이 크게 고통스러운 일을 받더라도 불법을 보호하고 지니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르게 하리라고 보리심을 내는 것. 마지막으로, 불보살과 법이 없어지는 때를 보지 못하고 오직 악한 세상에서 선행을 닦을 수 없는 중생들을 보고 스스로 보리심을 내어야 일체중생을 가르쳐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의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으리라하며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⁶²⁾ 지금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계 즉, 사라져가는 불법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함께 오탁악세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게끔 스스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또한, 보리심을 내는 계기가 나 한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위하여 사홍서원을 발하되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낸다면 자비와 지혜가 충만해지고 스스로도 완전하고 다른 이들도 그대로 완전함을 알아진다. 그 자리가 바로 견성이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보다 많은 사람과 우주 법계의 행복을 위하여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삼독심으로 일궈놓은 삶은 무상하나 사홍서원으로 장엄한 삶은 무변하다. 도세⁶³⁾스님은 『법원주림⁶⁴⁾』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사람이 1백년을 산다 하여도
좋은 서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사홍서원을 일으킴만 못하느니라.⁶⁵⁾

사홍서원을 일으키지 않은 삶은 1백년도 무상하다는데, 어찌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 값진 하루하루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불법에 입각

62) 『大方便佛報恩經』卷2<4 發菩提心品>:「是菩提心有四種:一者,若善男子、若善女人,若見若聞諸佛菩薩不可思議事,爾時即生信敬之心,作是念言:『佛菩薩事不可思議。若佛菩薩不可思議事是可得者,我亦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故至心念於菩提,發菩提心。復有不見諸佛菩薩不思議事,以聞諸佛菩薩祕密之藏;聞已,即生信敬之心;得生信心故,為阿耨多羅三藐三菩提及摩訶般若,是故發菩提心。復有不見諸佛菩薩不思議事,亦不聞法,見法滅時,復作是念:『無上佛法能滅眾生無量苦惱,作大利益。惟諸佛菩薩能令佛法久住不滅。我今亦當發菩提心,令諸眾生遠離煩惱。願我此身受大苦事,護持佛法久住於世故,發菩提心。』復有不見諸佛菩薩法[15]滅時,唯見惡世諸眾生等,具重煩惱、貪欲、瞋恚、愚癡等;無慙、無愧、慳吝等;嫉妬、恚癡、苦惱等;不信、邪疑、懶惰等。見是事已,即作此念:『大惡世時,眾生不能修善。如是惡時,尚不能發二乘之心,何況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我今當發菩提心,發菩提心已,乃當教一切眾生令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CBETA 2022.Q3, T03, no. 156, pp. 135c12-136a4)

63) 도세(道世, ?-683). 당의 승려. 장안출신. 12세에 청룡사에 출가하고 율학에 정통함. 현장의 역장에 참여하고, 후에 서명사에 머무름. 저서로는 『법원주림(法苑珠林)』, 『사분율도요(四分律討要)』, 『제경요집(諸經要集)』 등이 있다.

64) 『法苑珠林』100권. 당나라 도세지음. 불교의 여러 가지 사항을 분류하여 기록한 불교의 일대류서(一大類書). 양적으로도 방대하고 소재도 다양하여 자료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규봉종일의 『선원제전집(禪源諸詮集)』100권, 영명연수의 『종경록(宗鏡錄)』과 함께 중국불교의 3대 저서로 일컬어진다.

65) 『法苑珠林』卷48:「人壽百歲 不起善願 不如一日 發行四弘」(CBETA 2022.Q3, T53, no. 2122, p. 652c14-15)

한 영원한 행복을 향한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일상의 사홍서원도 함께 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상담을 해주기 위해 다양한 상담기법들을 습득하면서 상담자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두루 마음을 내되, 내담자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사홍서원의 활용으로 기재하였다. 상담자가 상담에 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고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자세를 갖춘다면 불교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론 온 우주 법계가 행복하고 청정해지지 않을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경전을 통해 사홍서원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실천하자는데 뜻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사홍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모색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불교상담 시 상담자의 자세를 사홍서원을 중심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상담에서 사홍서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불교상담에서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불교상담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사홍서원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해탈시킨 후 자신도 성불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내재된 가능성을 알기에 바른 길로 이끌며 흔들림이 없이 내담자를 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사홍서원은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가 번뇌를 가라앉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마침해탈을 얻겠다는 뜻으로,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자신의 틀로 보지 않는 것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사홍서원은 팔만사천법문을 모두 배운다는 뜻으로,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다양한 상담기법을 배워 상담의 질을 높이고 내담자의 삶의 질도 높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사홍서원은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룬다는 뜻으로,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궁극적인 행복 즉,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불교상담자의 자세는 첫째, 중생제도를 통해 보살행을 닦는 것이다. 이때 상담자는 중생을 제도한 일도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하며 한사람도 남김없이 성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번뇌를 끊고 청정심을 보는 것이다.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와 상호작용 시 내담자의 감정을 담아 내려면 상담자 스스로 왜곡된 견해와 감정을 끊고 청정심을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부처님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다양한 법문을 접하고 내담자가 부처님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넷째,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상담 시 사홍서원을 기반으로 한 불교상담자의 자세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불교상담, 불교상담자, 사홍서원, 불교상담자의 자세

References

1) 경전자료

- 『金剛般若波羅蜜經』 (CBETA 2022.Q3, T08, no. 237)
- 『阿耨多羅三藐三菩提經論』 卷3 (CBETA 2022.Q3, T25, no. 1511)
- 『大般若波羅蜜多經(第201卷-第400卷)』 卷392 (CBETA 2022.Q3, T06, no. 220)
- 『大方便佛報恩經』 卷2 〈4 發菩提心品〉 (CBETA 2022.Q3, T03, no. 156)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9 (CBETA 2022.Q3, T19, no. 945)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4 (CBETA 2022.Q3, T19, no. 945)
- 『大寶積經』 卷5 (CBETA 2022.Q3, T11, no. 310)
- 『大寶積經』 卷85 (CBETA 2022.Q4, T11, no. 310)

『大般若波羅蜜多經(第401卷-第600卷)』卷599 (CBETA 2022.Q3, T07, no. 220)
『摩訶般若鈔經』卷1 〈1 道行品〉 (CBETA 2022.Q4, T08, no. 226)
『放光般若經』卷3 (CBETA 2022.Q4, T08, no. 221)
『法界次第初門』卷3 (CBETA 2022.Q3, T46, no. 1925)
『法苑珠林』卷48 (CBETA 2022.Q3, T53, no. 2122)
『菩薩瓔珞本業經』卷1 〈3 賢聖學觀品〉 (CBETA 2022.Q3, T24, no. 1485)
『佛說大方廣善巧方便經』卷3 (CBETA 2022.Q3, T12, no. 346)
『佛本行集經』卷29 (CBETA 2022.Q4, T03, no. 190)
『大乘本生心地觀經』卷7 〈8 波羅蜜多品〉 (CBETA 2022.Q3, T03, no. 159)
『阿闍佛國經』卷1 〈1 發意受慧品〉 (CBETA 2022.Q3, T11, no. 313)
『止觀大意』 (CBETA 2022.Q3, T46, no. 1914)

2) 사전류

곽철환(2003), 시공불교사전, 시공사
김승배(2001), 불교학대사전, 흥법원
지관(1999~2015), 가산불교대사람①~⑩, 가산불교문화연구원

3) 단행본

김동일, 이정인, 김기현, 유훈(2021). 코로나 일상 시대 대학학생 상담기관의 기능과 역할: 비대면 기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6(1), 47-63.
김호귀(2015), 육조대사법보단경, 한국학술정보
방기연(2000), 불교상담, 조계종출판사
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21).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4) 인터넷

<https://abc.dongguk.edu/ebti/c3/sub1.jsp>
<https://cbetaonline.dila.edu.tw/zh/>
김종득 (2022). <http://www.gi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07>
<https://kabc.dongguk.edu/index>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 <https://krcca.or.kr/user/intro.asp>